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는가?: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통해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한다. 현실주의 내에서 미중 갈등과 전쟁 가능성은 주로 공격적 현실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면 미중간 심각한 안보경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야기되어 평화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실제 전쟁 위기로 전환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중 충돌과 국제질서 불안정성에 대해 방어적 현실주의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와 대비되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해석과 예측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방어적 현실주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공백이 존재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현실주의 설명들이 미중관계를 갈등과 충돌로 예측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반드시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국가성향, 현상유지, 안보딜레마, 그랜드바겐 등의 개념을 통해 미중관계를 재해석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주제어: 미국, 중국, 투키디데스 함정, 방어적 현실주의

I. 미중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불가피한가?

미중 관계는 21세기 세계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가? 그 래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결과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E-mail: whang38@uos.ac.kr)

경고하고,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이라 명명했다(Allison 2015, 2017). 이후 국내외에서 이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관련 연구와 논쟁이 커다란 유행이 되었다(김지훈 2020; 김태현 2017; 민병원 2020; 박주현 2022; Chan 2020; Feng & He 2020; Hanania 2021; Kirshner 2019a, 2019b; Lee 2019; Mastro 2019; Moore 2017; Pempel 2015; Platias & Trigkas 2021; Wang & Tanner 2020; Yang 2018; Yoder 2019; Zhang 2019; Zhang & Pu 2019; Zhang 2021).

하지만,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미중갈등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성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Friedberg 2005). 2,500여년전 지중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현재 미중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신흥 강대국 부상이 반드시 전쟁을 야기하는지 비판이 만만치 않다(Chan 2020). 중국의 부상이 미중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들 역시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이론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글로벌 세력전을 가져와 전쟁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예상한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통해 글로벌 세력균형이 회복됨으로써 국제질서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전자는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후자는 월츠(Kenneth N.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이근욱 2009, 46-47). 현실주의와 함께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수용되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역시 미중 갈등에 대해 상이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Friedberg 2005, 12-39). 각 패러다임 내에서도 하부이론들은 전제에 따라 상이한 설명을 제공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내부에서도 고전(혹은 신고전)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는 구조적 현실주의와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Kirshner 2010, 2019b; Lobell et al. 2009; Rose 1998). 구조적 현실주의 내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의 미중 갈등 해석은 다르다. 이 차이는 현상에 대한 해석 차이뿐만 아니라 이론적 전제에 의한 예측의 차이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군사적 충돌을 미중관계의 당연한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을 비판하고, 방어적 현실주의 시각을 통해 미중 갈등 가능성을 분석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미중 충돌과 전쟁 가능성은 그동안 공격적 현실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Li 2016; Lim 2014; Mearsheimer 2001, 2010, 2014; Popescu 2022; Zhang 2014; Zhang 2022).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은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저서를 통해 20여년 전부터 비교적 잘 알려져 왔다(2001, 396-402). 그의 예측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적 부상을 지속한다면 미중 안보경쟁이 야기되어 평화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갈등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논리대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면서도 완전한 충돌로 가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방어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국제질서의 예측과 비슷하다.

하지만, 미중관계에 대한 방어적 현실주의의 설명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Glaser 2011, 2015, 2021; Raditio 2015; Tang 2015).¹⁾ 방어적 현실주의가 공격적 현실주의와 경쟁하는 국제정치이론으로 치열하게 논쟁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다. 당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이론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중 충돌과 국제질서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방어적 현실주의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가설과 전제를 통해 미중관계를 해석할 때 국제질서는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대부분의 현실주의 설명들이 미중관계를 심각한 갈등과 충돌로 예측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관계가 반드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Glaser 2011, 80-91).

이 글은 현실주의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방어적 현실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논의하며 미중갈등에 대해 어떤 차별화된 설명을 제시하는 지 살펴본다.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의 가설들이 중국의 국가성향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 공격적 현실주의와는 얼마나 다른 설명과 분석을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중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한다.

II. 최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2022년 8월 초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긴장을 높여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대만을 둘러싸며 설정한 구역에서 공중훈련, 장거리 화력 실탄사격 등 다양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만

1) 방어적 현실주의 논의는 대부분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년대 중반까지 상황을 다루고 있다.

문제를 두고 파렴치한 불안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b). 시진핑 주석 역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직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불안탄 하는 사람들은 타 죽는다”며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a).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역시 분명 공세적으로 변했다. 2022년 10월 발간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언급했다(The White House 2022b).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권을 확대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려는 야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었다(The White House 2015, 24).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직면한 중국의 도전이 “현상타파적 대외정책을 가진 권위주의 통치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The White House 2022b, 8).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구체화되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중국을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했다(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7).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부상 이후 공산당의 리더십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팽창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지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거의 모든 대외정책을 뒤집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만은 승계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서’ 역시 중국이 역내에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아 영향권을 구축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고자 한다고 평가한다(The White House 2022a). 중국의 강압과 침략(coercion and aggression)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역내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한 행동에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21년 9월 호주 및 영국과 오커스(AUKUS)를 결성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협력을 위한 3국간 안보 파트너십(trilateral security partnership)임을 분명히 했다(The White House 2021). 3국정상의 공동발표문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공급하여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8척 건조를 돕는 계획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호주를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버린 것인가? 엘리슨이 설명하는 대로, 현재 중국의 행동은 19세기 이후 미국의 행동과 비슷하다. 과거 영국이 미국의 부상을 수용했던 것과 달리 현재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중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실제 미중간 신냉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논의들이 최근 폭증하고 있다(*The Economist*, 19 May 2019).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단극체제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던 미어샤이머는 현재의 미중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침예한 안보경쟁이 이루어지는 신냉전(new cold war)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Mearsheimer 2021). 그는 중국이 과거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여서 미중간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 높다고 예상한다. 냉전사의 대가인 개디스(John Lewis Gaddis) 역시 미중관계가 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Brands & Gaddis 2021). 미중관계가 과거의 미소 냉전과는 다르겠지만, 대만 문제 등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라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0년대 내에 미중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eckley & Brands 2022). 실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클 미니헌(Michael A. Minihan) 미 공군 항공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 사령관은 2025년 미중이 대만 문제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전투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Lamothe 2023). 미 중앙정보부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 국장은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군사적으로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다(Martina & Brunnstrom 2023). 그렇다면,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관계 악화와 군사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Ⅲ. 방어적 현실주의 대 공격적 현실주의: 미중갈등에 대한 다른 해석과 예측

방어적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처럼 구조적 현실주의의 한 분파로 알려

져 있다(Jervis 1999). 고전 현실주의는 신고전 현실주의로 발전했으며(Lobell et al. 2009; Rose 1998), 구조적 현실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로 분화되었다.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국가성향과 안보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여 왔다. 두 이론은 국가성향과 무정부상태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Brooks 1997; Frankel 1996; Jervis 1999).

저비스(Robert Jervis), 글레이저(Charles Glaser),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로 대표되는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국제무정부(international anarchy) 구조에서 안보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Glaser 1994/95, 2010; Jervis 1978, 1999; Snyder 1991; Snyder & Lieber 2008; Taliaferro 2000/01; Van Evera 1998, 1999).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력의 최대화가 국가의 대외 안보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Lieber 2007; Mearsheimer 1994/95, 2001, 2018; Snyder 2002).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무정부구조 하에서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의심한다. 국가들은 대체로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어 질서를 변화시킬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상유지 세력(status-quo power)’이어서 상대국의 위협과 팽창 가능성을 근심하며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공격적 현실주의와 달리 국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이다(Glaser 2010, 13, 57). 국가들은 평소 현상유지 성향을 보이지만, 무정부적 국제구조의 특정한 조건하에서 대외팽창을 추구하는데, 그 조건이 안보딜레마이다(Jervis 1978, 1999). 한 국가의 안보증진 노력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국가들은 상대방 의도와 상대적 힘의 차이에 근심하게 된다. 국가들은 평상시에는 현상유지로 안보를 추구하는 방어적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공격적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생존을 위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고조된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원래부터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 power)의 속성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해석한다. 오히려 국가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안보딜레마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Taliaferro 2000/01, 129). 윌즈는 국가들이 스스로 지위를 보호하는 현상유지를 통해 방어적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Waltz 1979, 126-127). 무정부 구조에서 세력균형을 붕괴시키려는 공격적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현상타파 성향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가 유리하고, 공격보다는 방어에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상대방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이나 탐욕보다는 상대방에게 정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국가성향이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이다(Glaser 1994/95).

결과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국제질서는 안보딜레마가 없는 평온한 질서와 안보딜레마가 심화되는 냉혹한 질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어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경우 방어적 현실주의가 그리는 국제질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처럼 상대국의 팽창과 현상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Mearsheimer 2001, 29). 안보딜레마는 심화되면 벗어나기 쉽지 않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Montgomery 2006, 151 - 185). 이런 상황에서 무정부적 국제질서는 국가들이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힘만이 생존을 보장하므로 상대국에 대한 권력 최대화를 추구하며 대외팽창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과 비슷하게 된다(Mearsheimer 2001, 4-8, 17-22). 하지만, 국제관계가 항상 안보딜레마 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가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적 전망을 항상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상유지의 상황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정부 질서에서도 협력과 평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 본성 자체가 현상유지에서 현상타파로 변화한다고 인식하지도 않는다. 안보딜레마 하의 국가 행동은 현상유지 국가로서 현상변경 가능성에 대비하고 현상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모습이다. 이들 국가의 행동은 두려움과 근심에서 비롯되어 현상을 유지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다(황지환 2007). 공격적 현실주의와 비슷한 비판적 국제질서를 예상할 때도 방어적 현실주의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안보딜레마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상대국이 팽창하여 현상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현상타파 국가와 비슷한 정책을 취하게 되지만, 국가행동의 목적은 적극적 팽창이 아니라 안보추구이다. 현상유지 국가를 안보추구 국가(security-seeking state)로 이해하는 이유이다(Taliaferro 2000/01). 만일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상이 붕괴될 것이고, 이는 현상유지 국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현상유지의 국가성향 하에서도 국가 분쟁을 설명할 수 있고, 현실 국제질서의 전쟁이나 군

사적 충돌을 설명할 수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현상타파 국가의 전제 없이도 국제질서의 다양한 변화가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를 통해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 경쟁과 갈등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별화된 해석과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 미국은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로 인식하는데(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7-10; The White House 2022b, 8), 공격적 현실주의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이 안보딜레마 하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현상유지 국가일수 있다고 본다. 미중 충돌이 예측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안보딜레마의 심화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 사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반드시 야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IV. 중국의 국가성향과 미중갈등: 현상유지 성향의 인식

1. 중국 국가성향의 상대적 이해

국제관계의 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방어적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놓여 있다고 이해된다(Jervis 1999). 따라서 미중갈등에 대한 설명에서도 방어적 현실주의는 그 두 이론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가령, 자유주의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으로 예측한다(Chan 2020). 자유주의 분석의 핵심은 현재 미중이 가진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영향력으로 인해 천문학적 전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최근 미중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단극질서(unipolarity)를 위협하는 새로운 현상타파 세력으로 중국이 등장할 것인지 국제정치학계는 커다란 관심을 보여 왔다(Friedberg 2005; Goldstein 2005, 2013; Johnston 2003, 2013). 최근 학계 뿐 아니라 정책 영역에서도 중국이 현상타파 세력이라는 언급이 많지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협이 과장되고 있기도 하다(Swaine 2022). 그렇다면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국가성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우선,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대만문제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영토적 야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어 왔다(Pravel 2005; Johnston 2003, 2013; Swaine 2011). 중국이 설사 탐욕적인 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적 현실주의는 제한적인 의도와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Glaser 2010, 105; Taliaferro 2004, 236-237). 현상 유지 전략을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논리는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현상유지가 무엇이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행동이 현상타파로 해석될 수도 있다(Glaser 2015, 64-65).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한다면 현상붕괴를 우려하여 현상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스스로 현상유지적이라 생각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현상타파적이라 평가할 것이다(Friedberg 2015, 133 - 150).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행동이 현상변경을 위한 팽창주의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안보가 취약하고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상유지의 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Glaser 2015, 66-67; Nathan & Scobell 2012, 3). 하지만, 중국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성향이 자신의 속성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의 대외 인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Glaser 2010, 216-218).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다른 국가의 의도(intention) 및 동기(motive)에 관한 중국의 신뢰는 매우 낮다. 특히 일본의 국가 의도 및 행동의 동기에 대한 중국의 신뢰는 굉장히 낮다. 일본의 과거사 대응이나 군비증강,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신은 굉장히 크다. 중국은 일본이 현상유지 국가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 실제 2022년 12월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c).

2. 과장된 중국 위협론의 위험성

이러한 관점에서 글레이저는 국가 동기에 관한 정보가 중국의 국가성향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2010, 213-219).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동기에 관한 정보는 유럽에 비해 불확실한 면이 많다. 결국 중국의 의도가 실제로 무엇이든지 불확실성과 정보부족이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

킬 수 있다(Glaser 2010, 105). 방어적 현실주의가 중국의 국가성향을 반드시 현상유지 성향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엄청나게 팽창주의적 인 계획이나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가성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Glaser 2010, 273-274; Glaser 2015, 53). 과거의 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와는 달리 현대 세계질서의 속성상 상대국의 의도와 동기를 완전히 오해하고 전혀 반대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Glaser 2010, 105). 중국의 국가 의도와 행동의 동기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면 국가간 해석 차이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상대국 의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전제에 기초하는데, 만약 양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오해한다면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국력 상승으로 인한 위협을 미국이 과장하지 않기를 조언한다(Glaser 2011). 미국의 중국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스와인(Michael Swaine 2022)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최악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미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내 온건파들의 입지를 취약하게 해서 미중 군사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칼럼에 대표적 방어적 현실주의자인 로버트 저비스를 포함하여 많은 미국의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공개 지지한 바 있다(Fravel et al. 2019). 방어적 현실주의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이 역내 분쟁 모두에서 승리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몰아내려는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양보는 큰 위협과 비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양보로 중국의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미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이 훼손될 수도 있다(Glaser 2015, 78-79). 하지만, 중국의 목적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이라면 미국이 중국에 일정한 양보를 한다 해도 큰 위협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저비스(Jervis 2021) 역시 중국이 미국 및 동맹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합리적 이익과 근심을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양국 지도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Jervis 2006, 206-208).

3. 새로운 동아시아 현상유지 설정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 대외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령, 중국의 국가성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대만문제는 예외로 다루고 있다(Glaser 2015).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이 경우 미중 군사적 충돌 우려가 있다(Swaine 2014, 39-49). 중국은 군사력의 성장으로 유사시 대만문제에 대해 위기를 고조시킬 의지와 능력이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라고 오랫동안 분명하게 언급해 왔으며, 인민해방군은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 군사력을 확보해 왔다(Fravel 2008, 220-266). 이로 인해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안보공약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미중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대만에 상당액의 무기를 판매하며 안보공약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비교하면 모호하고 위협하다. 때문에 방어적 현실주의는 대만문제에 대한 타협을 통해 전반적인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Glaser 2011, 2021).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대만은 미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및 일본과 달리 대만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보호라는 이념적 명분에 가깝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대만 다음으로 남중국해를 지적한다.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비교적 중요하고 리스크가 작아 미국이 지속적으로 안보공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어 미국이 이를 억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해양 분쟁이 증가하면서 미중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의 미국 우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보다 큰 여지를 주면서 개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상 우월한 행위자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선택(hard choice)'이겠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Glaser 2021).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축소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을 줄여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상하는 세력은 이전에 이루기 어려웠던 목표를 이제 달

성할 수 있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쇠퇴하는 세력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위험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해 주면 새로운 상태에서 현상유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미중 전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Glaser 2015, 57).

현실주의 이론에서 방어적 현실주의만이 미국의 양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과 냉전시기 세력경쟁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현실주의 관점도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양보하고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정책조정을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ayne 2020). 현 상황은 쇠퇴하는 패권국이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려 하고 부상하는 국가는 현재의 질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권력배분 상황을 실현하려는 갈등 상황이기 때문이다(Gilpin 1981, 10). 이러한 관점은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자제(restraint)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Steinberg & O'Hanlon 2014; Swaine 2011).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정책과 현재 미국의 대중 정책은 자제의 정책이 아니라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V. 미중간 안보딜레마와 그랜드바겐의 필요성

1. 미중간 안보딜레마의 심화 가능성

방어적 현실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 특히 유럽보다도 더욱 경쟁적이고 위험해 질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Glaser 2010, 217). 하지만, 중국의 성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반드시 미중관계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야기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미래의 세력변화가 그리 크지 않고 방어가 더 유리하며 상대국 의도가 비교적 우호적이라면 예방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중 사이에는 핵무기와 태평양이 존재하고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나 태평양의 존재는 중국의 안보에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Glaser 2015, 53). 국제질서가 미중 양극질서로 회귀하더라도 큰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이다. 중국 국가성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예방전쟁을 고려하거나 강경책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Mearsheimer 2001, 396-402), 방어적 현실주의의 의견은 다르다. 지리적 크기나 인구규모, 경제력을 고려하면 중국은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하기 보다는 적절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 안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Glaser 2010, 275).

물론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안보딜레마의 심화이다. 서로 상대국이 탐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상당수준의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경제성장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강되더라도 미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은 대외적 팽창의 탐욕적 의도로 주변국에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Goldstein 2005, 202). 탈냉전이후 30여년의 시기를 되돌아 볼 때,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첨예화된 것이 현실이며, 일정 정도의 안보딜레마가 야기된 것이 사실이다(Glaser 2010, 220).

이런 관점에서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대 중국정책이 미중갈등과 국제질서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역전략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경쟁적이고 충돌적일 필요는 없다. 만약 미국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조언대로 공세적 정책을 취한다면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켜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후퇴시킬 수 있다(Glaser 2010, 277). 미국의 공세적 대응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비취질 것이며, 중국 역시 보다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이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노력이 실제로는 중국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안보딜레마를 결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Glaser 2010, 105).²⁾ 미국은 자국의 정책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미국을 탐욕적이고 팽창주의적 국가로 인식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대중정책이 중국의 성장이나 대외정책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방어적 현실주의가 미중 안보딜레마 심화를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보는 이유이다.

2) 실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전략에 대해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Ross 2012, 70-82).

안보딜레마는 항상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화되느냐가 중요하다. 안보딜레마의 강도는 공격과 강압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격 우위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세력상승도 상대국의 안보를 악화시켜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방어와 억지가 용이할 때는 상대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해지더라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있다. 미중 사이에는 태평양이 놓여 있어 공격하기 어렵고 핵무기가 서로를 억지시켜 대규모 전쟁가능성은 낮다. 공수균형(offense-defense balance)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관계는 공격보다는 방어우위(defensive advantage) 상황이라고 평가된다(Glaser & Kaufmann 1998; Lynn-Jones 1995; Van Evera 1999). 이는 미중간 안보딜레마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미중의 역내 군비경쟁은 공격과 강압이 우위인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안보딜레마의 강도는 상대국의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도 영향을 받는다. 상대국의 의도가 패권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보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상대국의 국력 증가가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위기고조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상대국의 의도가 패권추구라고 믿게 되면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방어적 군사력과 억지노력을 어느 정도 양보하며 수용할 것을 조언한다. 미중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이다.

2. 미중간 그랜드바겐의 필요성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관계의 위험요인이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미중 전쟁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중 그랜드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Glaser 2015, 78-83). 미중 그랜드바겐의 가장 큰 희생양은 대만이다. 미국이 중국과 그랜드바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방어적 현실주의가 제안하는 가장 좋은 옵션은 대만을 양보하고 다른 부문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문제를 양보하더라도 진정한 핵심 이익인 미국 본토방위는 위협에 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평양과 핵무기의 존재는 미국이 쉽게 대중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Glaser 2021, 2015).

그랜드바겐은 미중간 세력전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랜드바겐을 통해 미국은 중국 대외전략의 목표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역내 동맹에 대한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랜드바겐의 조건 중 하나는 중국이 정당한 조건으로 남중국해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고 해양분쟁을 해소하느냐 여부이다. 중국의 행동을 통해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동맹유지와 병력의 전진배치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존재가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와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국의 본토방위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러한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 국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의 리스크만 커지기 때문에 그랜드바겐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Glaser 2015, 83-84). 중국이 여전히 더 큰 지역적 야심이 있고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랜드바겐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경우 미국에게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랜드바겐보다는 위험한 결과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Glaser 2015, 89).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종료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해소하는 지정학적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닫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역내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점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같은 우발적인 상황이 역내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의 대중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도 있다(Jervis 2006, 206-208). 기존의 대중 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양보에 대한 기대 없이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유화 appeasement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좋은 선택도 아니다. 중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는 그랜드바겐이 실패할 경우 축소 retrenchment 전략을 제안한다(Glaser 2021). 이 전략은 미국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종료하고 대중 적대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다. 축소전략 역시 미국이 중국에 많이 양보하는 선택이지만, 전쟁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목표가 제한적이냐의 여부나 중국이 미국의 양보에 동의하느냐에 상관 없이 미국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축소전략 역시 그랜드바겐보다는 미국에게 불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VI. 한반도에 대한 합의

향후 미중관계가 갈등과 충돌의 질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해 대안적인 전망을 고민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해 완전히 현상타파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중국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분쟁이 존재하지만 대만문제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다. 중국의 의도와 행동의 동기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성향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 부족이 중국의 국가성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지는 않는다.

방어적 현실주의의 권고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역내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한반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중 그랜드바겐과 정책 조정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책, 북한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양보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국의 안보공약을 의심하고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거나, 한국과 일본이 동맹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ush 2013, 232; Tucker & Glaser 2011, 33). 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을 대만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동아시아 동맹의 존재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를 억지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미중 그랜드바겐의 과정에서도 미군의 동아시아 전진배치와 동맹의 유지는 핵심적인 조건으로 논의되었다(Glaser 2021). 더구나 미국이 축소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여유 자원을 동아시아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을 견고히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Glaser 2015, 82). 미국이 냉전기 유럽에서 소련의 공격을 억지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도 동맹을 통해 중국을 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동맹 공약을 강화하고 재래식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공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지훈. 2020.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투키디데스의 가르침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60(4), 7-40.
- 김태현. 2017. “투키디데스의 ‘이중 함정’: 중국의 부상과 현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57(2), 7-49.
- 민병원. 2020. “미중관계의 구조적 이해: 투키디데스 함정과 리프만 불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5(1), 87-114.
- 박주현. 2022. “세력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본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의 구조적 조건: 21세기 미국-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8(4), 1-34.
- 이근욱. 2009. 『왈츠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황지환. 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47(3), 7-25.

영문 자료

- Allison, Graham. 2015.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 _____.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 Beckley, Michael & Hal Brands.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W. W. Norton & Co.
- Brands, Hal & John Lewis Gaddis. 2021.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100(6), 10-21.
- Brooks, Stephen G. 1997. “Dueling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3), 445-477.
- Bush, Richard C. 2013. *Uncharted Strait: The Future of China-Taiwan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Chan, Steve. 2020. *Thucydides’s Trap?: Historical Interpretation, Logic of Inquiry, and the Future of Sino-American Rela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ina v. America: A New Kind of Cold War.” *The Economist*, 16 May 2019.
- Feng, Huiyun & Kai He(Editor). 2020. *China’s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Order Transition: Beyond “Thucydides’s Trap”*.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rankel, Benjamin. 1996. “Restating the Realist Case.” *Security Studies* 5(3), 9-20.
- Fravel, M. Taylor. 2005.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30(2), 46-83.
- _____. 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J. Stapleton Roy, Michael D. Swaine, Susan A. Thornton & Ezra Vogel. 2019.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July 3.
- Friedberg, Aaron L.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7-45.
- _____. 2015. “The Sources of Chinese Conduct: Explaining Beijing’s Assertiveness.” *Washington Quarterly* 37(4), 133-150.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ser, Charles. 1994/95.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19(3), 50-90.
- _____. 2010.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Will China’s Rise Lead to War? Why Realism Does Not Mean Pessimism.” *Foreign Affairs* 90(2), 80-91.
- _____. 2015. “A U.S.-China Grand Bargain? The Hard Choice Between Military Competition and Accommodation.” *International Security* 39(4), 49-90.
- _____. 2021. “Washington Is Avoiding the Tough Questions on

- Taiwan and China: The Case for Reconsidering U.S. Commitments in East Asia.” *Foreign Affairs*, April 28.
- _____ & Chaim Kaufmann. 1998. “What is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can we measure it?” *International Security* 22(4), 44-82.
- Goldstein, Avery. 2005.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First Things First: The Pressing Danger of Crisis Instability in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7(4), 49-89.
- Hanania, Richard. 2021. “Graham Allison and the Thucydides Trap Myth.”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5(4), 13-24.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
- _____. 1999.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24(1), 42-63.
- _____. 2006. “Correspondence: Thinking Systemically about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31(2), 206-208.
- _____. 2020. “Robert Jervis reflects on America’s Foreign Policy for January 2021: What to plan for when you’re expecting.” Chatham House, January 15, <https://americas.chathamhouse.org/article/robert-jervis-reflects-on-americas-foreign-policy-for-january-2021-what-to-plan-for-when-youre-expecting/> (accessed 05 April 2023).
- Johnston, Alastair Iai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4), 5-56.
- _____.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4), 7-48.
- Kirshner, Jonathan. 2010. “The Tragedy of Offensive Realism: Classical Realism and the Rise of Chin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1), 53-75.
- _____. 2019a. “Handle Him with Care: The Importance of Getting Thucydides Right.” *Security Studies* 28(1), 1-24.
- _____. 2019b. “Offensive Realism, Thucydides Traps, and the

- Tragedy of Unforced Errors: Classical Realism and US-China Relation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1, 51-63.
- Lamothe, Dan. 2023. “U.S. General Warns Troops that War with China is Possible in Two Year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7.
- Layne, Christopher. 2020. “Preventing the China-US Cold War from turning ho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3(3), 343-385.
- Lee, James. 2019. “Did Thucydides Believe in Thucydides’ Trap?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and Its Relevance to U.S.-China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4, 67-86.
- Li, Xiaoting. 2016. “Applying Offensive Realism to the Rise of China: Structural Incentives and Chinese Diplomacy toward the Neighboring Stat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6(2), 241-271.
- Lieber, Keir. 2007.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32(2), 155-191.
- Lim, Yves-Heng. 2014. *China’s Naval Power: An Offensive Realist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Lobell, Steven E., Norrin M. Ripsman, & Jeffrey W. Taliaferro(Editor). 2009.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nn-Jones, Sean M. 1995. “Offense-Defense Theory and Its Critics.” *Security Studies* 4(4), 660-691.
- Martina, Michael & David Brunnstrom. 2023. “CIA Chief Warns against Underestimating Xi’s Ambitions toward Taiwan.” *Reuters*, February 2.
- Mastro, Oriana Skylar. 2019. “In the Shadow of the Thucydides Trap: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Prospects for Peace in U.S.-China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4, 25-45.
- Mearsheimer, John J. 1994/95.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3), 5-49.
- _____ .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_____.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 381-396.
- _____. 2014.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 _____. 2018.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100(6), 48-5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a. "President Xi Jinping Speaks with US President Joe Biden on the Phone." July 29, 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207/t20220729_10729593.html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2b. "Wang Yi: The U.S. Side's Act in Bad Faith on the Taiwan Question Will Only Further Bankrupt Its National Credibility." August 3, https://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wjbz_663308/activities_663312/202208/t20220803_10732397.html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2c.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December 16,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212/t20221216_10991370.html (accessed 05 April 2023).
- Montgomery, Evan Braden. 2006. "Breaking Out of the Security Dilemma: Realism, Reassurance,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International Security* 31(2), 151-185.
- Moore, Gregory J. 2017. "Avoiding a Thucydides Trap in Sino-American Relations (and 7 Reasons Why that Might be Difficult)." *Asian Security* 13(2), 98-115.
- Nathan, Andrew J. & Andrew Scobell. 2012. *China's Search for Security*.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empel, T. J. 2015. "Thucydides (Clap) Trap: US-China Relations in a Changing Asia-Pacific." *Global Asia* 10(4), 88-93.
- Platias, Athanassios & Vasilis Trigkas. 2021. "Unravelling the Thucydides' Trap: Inadvertent Escalation or War of Choic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4(2), 219-255.
- Popescu, Ionut. 2022. "Only Offensive Realism Can Contain China." *The National Interest*, December 7.
- Raditio, Klaus Heinrich. 2015. "China's Shifting Behaviour in the South China Sea: A Defensive Realist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2(2), 309-328.
- Rose, Gideon. 1998.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51(1), 144-172.
- Ross, Robert S.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91(6), 70-82.
- Snyder, Glenn H. 2002. "Mearsheimer's World—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27(1), 149-173.
- Snyder, Jack. 1991.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 Keir A. Lieber. 2008. "Correspondence: Defensive Realism and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33(1), 174-194.
- Steinberg, James & Michael E. O'Hanlon. 2014.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aine, Michael D. 2011. *America's Challenge: Engaging a Rising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_____. 2014. "Trouble in Taiwan." *Foreign Affairs* 83(2), 39-49.
- _____. 2022. "Threat Inflation and the Chinese Military."

-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Quincy Paper No. 7.
- Taliaferro, Jeffrey W. 2000/01.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25(3), 128-161.
- _____. 2004. *Balancing Risks: Great Power Intervention in the Periphe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Tang, Shiping. 2015. "From Offensive to Defensive Realism: A Social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in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edited by Robert S. Ross and Zhu Feng, 141-162.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accessed 05 April 2023).
- The White Hous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_2.pdf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1. "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September 1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15/joint-leaders-statement-on-aucus/>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2a.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05 April 2023).
- _____. 2022b.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accessed 05 April 2023).
- Tucker, Nancy Bernkopf & Bonnie Glaser. 2011. "Should the United States Abandon Taiwan?" *The Washington Quarterly* 34(4), 23-37.
- Van Evera, Stephen. 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5-43.

- _____. 1999.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Dong & Travis Tanner(Editor). 2020. *Avoiding the 'Thucydides Trap': U.S.-China Relations in Strategic Domains*. New York: Routledge.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Yang, Yuan. 2018. "Escape both the 'Thucydides Trap' and the 'Churchill Trap': Finding a Third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under the Bipolar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1(2), 193-235.
- Yoder, Brandon K. 2019. "Uncertainty, Shifting Power and Credible Signals in US-China Relations: Why the "Thucydides Trap" Is Real, but Limited."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4, 87-104.
- Zhang, Baohui. 2014. "Xi Jinping, 'Pragmatic' Offensive Realism and China's Rise." *Global Asia* 9(2), 71-79.
- _____. 2022. "From Defensive toward Offensive Realism: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tinuities in the United States' Chin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1, 793-809.
- Zhang, Biao. 2019. "The Perils of Hubris? A Tragic Reading of "Thucydides' Trap" and China-US Relation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4, 129-144.
- Zhang, Chunman & Xiaoyu Pu. 2019. "Introduction: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e Thucydides Trap?"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4, 1-9.
- Zhang, Falin. 2021. "Power Contention and International Insecurity: A Thucydides Trap in China - US Financi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0, 751-768.

Abstrac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alling into the Thucydides's Trap?: Learning from Defensive Realism

Jihwan Hwang ■ 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Thucydides's Trap' between the U.S. and China through defensive realism. The possibility of U.S.-China conflict has been mainly discussed in the frame of offensive realism. It argues that if China's rise continues, it will cause serious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crisis will turn into an actual conflict. Defensive realism provides an alternative perspective. However, the interpretation by defensive realism in contrast to offensive realism has not been highlight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efensive realism, there is a theoretical gap for the most important global issue. Most realist explanations predict U.S.-China relations as serious conflicts, but defensive realism posits tha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essimistic. This article draws the concepts of a state's motivation and type, status quo, security dilemma, and grand bargain, reinterprets U.S.-China relations, and presents alternative policies.

Key Words: The United States, China, Thucydides's Trap, Defensive Realism

